



- 북가주 브릿지캠프
- 목자 컨퍼런스
- 교육부 소식
- 칼럼 / 간증

‘복음의 씨앗, 싹 트게 하옵소서’



■ 멕시코 단기선교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지난 8월 11~14일까지 멕시코 ‘샌 비센테’ 지역으로 주안예교회 선교단원 60여명이 2019년도 단기 선교를 다녀왔다.

이 지역은 멕시코 원주민인 인디오족들이 봄철에 와서 농장에서 일을 하고 가을철 농장일이 끝나면 자기들이 살던 곳으로 돌아가는데 이때 농장 노동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전도하게 되면 그들이 고향에 돌아 가 가족과 이웃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므로 전도 효과가 크게 되는 것이다.

우리 선교단원들은 이번 전도활동을 통하여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 볼 때마다 뜨거운 은혜와 감동을 받았다. 이 보고를 통하여 그 큰 은혜와 감동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한다.

8월 11일 선교 단원들은 각각 벨리와 MP채플에서 1부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의 기도와 교인들의 과송을 받으며 50인승 버스와 4대의 밴에 나눠 타고 멕시코로 향하여 출발한지 3시간 만에 멕시코 국경에 도착하였다. <6면에 계속>

| 나형철 기자 |



멕시코 단기선교팀 민창식 집사가 콜로넛 지역에서 일터로 나가는 노동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 오른쪽 작은 사진은 구슬땀을 흘리며 원주민 여성의 머리를 예쁘게 손질해주고 있는 황금석 집사 <선교팀 사진부>

■ 북가주 브릿지 캠프



100여 참가·봉사자들 은혜충만... 성령의 열매

8월 9일부터 10일까지 1박 2일의 여정으로 북가주의 Scotts Valley 에 위치한 Mission Springs Camps and Conference Center 에서 제 1기 미주 주안에 브릿지캠프가 말씀의 가뭄에 갈급해 있던 그곳의 영혼들을 은혜의 단비로 축축히 적시면서 회개와 감사, 그리고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게하는 은총 가운데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60여명의 참가자들과 40 여명의 봉사자들이 하나가 되어서 일구어낸 천국잔치는 무엇보다도 폭포수 처럼 열정적으로 쏟아진

목사님의 말씀의 은혜가 컸지만, 또한 우리를 보호하듯 감싸고 있는 집업수들과 그 사이사이로 비추이는 적절한 햇빛 그리고 자기의 색을 간직하는데 충실했던 파아란 잔디가 함께 어우러진 수양관의 경치도, 천국의 분위기를 상상하기에 충분한 역할을 해주었다

시간에 쫓기면서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잠재우지 못하여서 어두운 길을 달려 오셨던 분, 그리고 이른 새벽부터 어린 아이들을 깨워서 동반 하느라 서둘러야 했던 부부,

결국은 모두가, 말씀을 통한 회개와 감동과 감사가 만들어낸 한줄기의 눈물을 흘려버리지 못한 아쉬움이 마음 한편에 자리하고 있었던건 아닐까?

북가주의 참가자들은 너무나 짧은 일정을 아쉬워 하면서 앞으로도 그곳에 있는 영혼들도 기억해주기를 바라면서, 종종 그런 은혜의 시간을 마련해 달라는 부탁과 아울러서 다음번 힐링캠프때에는 엘에이까지 꼭 참석하러 오시겠다는 분들도 있었다.

| 오희경 기자 |

목장 섬기며 체험한 내용과 열매, 기쁨과 격려 나눠

■ 목자 컨퍼런스

지난 8월 17일에 밸리채플에서 그리고 24일에는 MP채플에서, 목자 컨퍼런스가 각 교회에서 열렸다.

밸리에서는 50여명의 목자들이 참석한 이날 모임에서는 목자와 목원이 함께 받았던 은혜 내용과 목자들의 개인적인 경험들이 서로에게 도움이 될만한 내용들을 발표 형식으로 나눔으로서 모든 목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또한 각 목장의 경험과 형편을 나누면서 깨달아지는 것은, 목장들의 모양도 색깔도 형편도 다 다르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안에서 각 지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하나가 되어 가는 모습들이 무척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모든 공식적인 컨퍼런스가 끝난 후 맛있는 점심식사를 대접받으며 감사하였고, 더 감동이 된 것은 목원들이 목자에게 쓴 사



랑과 감사의 편지가 액자 속에서 빛나고 있었으며 장미꽃 한 송이와 함께 각 목자에게 전달되었을 때, 많은 목자 들께서는 더 섬기지 못했던 미안하고 감사한 마음 그 자체였다고 말씀을 하셨다.

목자의 사역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 성령 하나님께 감사 드린다고 목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셨다.

| 임용자 기자 |

■ 사역국장 모임

협력과 조화로
교회를 든든히...

올해 하반기 사역 국장 모임이 각 채플에서 있었다. 내용은 상반기 사역 진행 사항 점검 및 하반기 계획을 나누는 시간으로 마련되었다.

주안예교회 개척이후 이번 사역을 담당 한 각 사역국들이 예배를 위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함께 움직여줌으로써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고 담임목사님께서 감사의 마음을 표하여 주셨다. 뿐만 아니라 28부서의 사역국장들을 소개함으로써 각 사역국이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과 국장들이 요청했던 사항들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 임용자 기자 |



■ EM 연합 BBQ 파티

환영과 친교 통해 하나된 공동체

8월 4일 주일 오후 벨리 채플 양태섭 집사님, 양영 권사님 댁에서 EM연합 BBQ파티가 있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집에 돌아오는 아이들의 축하와 올해 대학에 들어가는 새내기들을 환영하며 EM이 연합하여 서로 친목, 단합 하자는 자리였다. 찬양과 게임, 수영을 통해 서로 알아가며 친해지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EM청년으로 조인한 졸업생을 받아주고, 가정을 이룬 1.5세와 2세가 함께 웃으며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참 감사하게 느껴졌다.

50여명이 모여서 준비해 주신 통돼지삼겹살과 매운닭갈비, 소세지, 스테이크로 몸도 마음도 풍성하고 의미있는 시간이었다.

| 이성은 기자 |



■ 주안에라이프 가을학기 개강

100여명 등록 배움의 열기

지난 수요일 가을학기를 맞이하여 주안에 라이프가 개강 예배를 갖고 힘차게 출발하였다.

21개 과목으로 25명의 강사님들께서 수고하실 예정이며, 18명의 주안에 장금이들께서 맛있는 아침과 점심 식사를 준비하게 될 것이다. 개강 첫날부터 100여명 이상의 어르신 학생들께서 등록하셨으며 좋은 과목이 너무 많아 어느 과목을 택해야할지 고민스럽다고까지 말씀하셨다.

이번 학기에 새로 개설된 클래스는 서예반, 골프반, 색소폰 반이 있으며, 이번 학기에는 실력있는 전공자 강사님들께서 가



르치게 되어서 타교회에서 오신 분들은 특히 더 좋아하셨다. 특히 음악 사역자 박찬경 집사님께서 가르치시는 색소폰을 배우

기 위해 파사디나에서 35 마일을 달려오셔서 등록한 어르신도 계셨다.

| 임용자 기자 |

■ 목자 컨퍼런스/ 목자들 소감



다양한 은혜 · 소중한 체험 함께 ‘공감’

윤세희 집사(밸리 18목장 목자) 저는 작년 한해와 올해 상반기동안 작은목자로 섬기다 2개월전부터 밸리 18목장을 섬기게 된 윤세희 집사입니다. 작은 목자는 목자를 도와 뒤에서 서포트를 잘하면 되지만 목자를 맡게 된다는것은 목원들을 더욱 친밀하게 사랑으로 섬겨야 하는 부담감과 책임감이 큰 자리라 과연 내가 잘 할수 있을지 걱정과 두려움에 처음에는 말지 않으려는 마음이 컸습니다. 하지만 부족한만큼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채워주신다는 말씀에 순종하기로 하였습니다.

저희 목장은 유아부터 이제 갓 대학을 들어간 자녀를 둔 부모들이 모여있는 목장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관심사도 자녀, 부부, 그리고 경제문제가 가장 많습니다. 목장의 나눔도 어떻게 하면 좋은 부모가 될지 신앙의 중심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삶의 문제를 하나님과 가장 많은 고민을 하며 나누고 있습니다. 다양한 연령대의 자녀를 둔 부모로서 하나님과 함께 말씀과 기도로 아이들을 양육하기 위해 서로 조언하며 격려하는 공동체라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광영 집사/임혜신 권사(MP 5목장 목자) 이번 목자 conference를 통해 그동안 몰랐던 부분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목자들의 간증을 통해 새로운 것도 배우고 또 귀한 만남을 통해 목자의 사명이 더욱 귀중하고 무겁게 느껴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목자들의 한끼 식사를 위해 온갖 정성으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의 그 사랑은 말로 표현할 수 없고 값을 수도 없을 만큼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먼 길을 달려와 위로해 주시

고 또 글로써 사랑의 마음을 남겨주신 모든 목원들께 무한한 고마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목원 여러분들의 아픔이 있으면 달려가 함께 나누고 위로하고, 기쁨이 있으면 함께 기뻐하는 목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성은 집사(MP 5목장) 8월 13일날 카톡으로 받은 공지에 '목자컨퍼런스'에 깜짝 파티를 준비해서 '목자님'을 써프라이즈 해 드리자는 내용에 다른 목원들과 카톡 단체방을 따로 만들어 같이 준비 하면서 기쁘게 헤드릴 생각에 가슴이 설레었다. 플링페이퍼를 '구역모임' 중에 한명씩 돌아가며 몰래가서 쓸때에는 나중에 읽어보실 분을 생각하니 저절로 미소가 지어졌다. 컨퍼런스 당일(8월 24일 토요일)기도 하시는 중에 살짝 들어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찬양을 부르며 두분을 찾아 걸어갈때 가슴이 뭉클하며 어찌나 눈물이 났는지... 우리 이광영 집사님, 임혜신 권사님, 아무리 힘든 사역이나 섬김 중에도 얼굴에 인상 한번 안 쓰시고, 웃는 모습이 아름다운 두분, 저~멀리 목원중에 한명이 보이더라도 하면 뛰어 가서서 안아주시고, 목원중에 아픔이나 힘든 일 겪는 분이 있으면 가슴으로 울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두분, 저는 아직 너무 부족하지만, 두분 본받아 언젠가 아름다운 섬김의 자리에서 기뻐할 날을 기대해 봅니다.

최애술리 권사(MP 2목장 목자) MP채플 2목장을 섬기며 섬김의 기쁨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교회에서 성도가 어떻게 왜 교체해야 하는지를 알게해준 곳이 주안에 교회의 목장 모임입니다. 목장 모임을 통하여 힐링 캠프를 참석하고 주일예배만 드리던 목원이 주중예배에도 참석하고 섬김을 받기만 하던 목원이 말씀으로 변화되어 섬김의 자리로 헌신하는 모습이 제게는 무엇보다 큰 은혜요 감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안에 삶을 통해 이론만 배웠던 교회는 한지체요 공동체라는 것을 목장을 섬기며 깨닫고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이제는 저에게 목원 한 분 한분이 주안에서 한 가족이요. 동역자이며 신앙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문수인 집사(MP 2목장) 요즘 저는 제 자신에 대해 반성과 회개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소홀해지는 시간이 반복 될수록 제 자신을 용서할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목자 컨퍼런스에 깜짝 파티가 있으니 목원들이 와서 축하해 드리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 목자 컨퍼런스/ 목자들 소감



“사랑해요 우리 목자님” 감사편지에 가슴 뭉클



들었고, 준비를 하면서, 그동안 목자님과 목원들과 함께 했던 시간들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의 발자취들은 저 혼자 만들어 낸 것이 아닌, 다른 목원들과 함께 만들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발자취들 속에는 성도의 교재도 있었고, 교재하는 중에는 서로 가지고 있는 각자 다른 은사에 대한 존중과 신앙의 눈높이도 맞춰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목자님께서 리더로서 잘 이끌어 주시고, 다른 목원들의 배려와 사랑 때문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자 컨퍼런스의 써프라이즈 시간에 목자님의 얼굴에 흐르는 눈물을 보면서, 가물었던 땅에 내리는 감동의 비처럼 성령의 단비가 축축하게 제 가슴속의 메마름과 갈급함을 시원하게 채워 주었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빈틈이 없도록 은혜로 채워 주시고, 내 주위의 사람들을 아름답게 사랑 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충전하는 감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목장을 통해 배운 말씀 훈련



고한선 집사(벨리)

모태로부터 40년 넘게 크리스천으로 살면서 그저 그렇게 주일을 지키고 남에게 큰 피해주는 일 없이 사는게 한 사람의 크리스천으로서 잘 사는 것이다 생각하면서 뜨뜻미지근한 신앙 생활을 하던 저는, 2015년 겨울 무렵 주안예교회에 첫발을 내딛기 시작하고 목사님 설교와 말씀을 듣게 되면서 제 삶과 신앙생활에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한번도 성경을 통독해본적도 없고 관심도 없던 저에게는 말씀의 중요성을 처음으로 뼈저리게 깨닫게 되는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설교를 한번 들어 보고는 또 들어보고 싶다 또는 말씀에 대한 다른 내용이 더 궁금하다는 생각이 조금씩 조금씩 제 마음에 자리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주안예교회의 교인이 되고 구역에 소속되어지며 스며들게 되었습니다. 그당시에는 지금의 목장 체제가 아닌 구역 모임의 형태로 한달에 한번 모여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지난해부터 목장 체제로 바뀌고 구역 식구들과 헤어지면서 낯선 새 목장 식구들을 만나 새로운 교회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서로 서로 배려하며 온 마음 다해 섬기시는 목자님 부부를 필두로 모든 목

원들은 하나같이 깊은 신앙심과 섬김의 자세로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따르는 참 크리스천의 모습으로 한가죽이 되어 갔습니다. 지금은 매주 목장 식구들과 만나서 예배를 드리고, 음식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귀한 자리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끄심에 더없이 경이롭고 감사드릴뿐입니다.

이제는 목사님의 말씀과 목장의 나눔은 저의 새 삶이 된 신앙생활의 큰 몫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혼자서 아무리 공부하고 성경을 통달한다 하더라도 실제 목장 생활같은 공동체 안에서 실천해 나가며 말씀을 훈련받는 것과 동일한 깨달음을 얻지 못할 것 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어진 모든 환경과 목장 생활이 그냥 내게 떨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의 큰 계획안에 아버지의 뜻하신 바가 있으셔서 주어졌음을 믿고 순종하고 서로 격려해가며 나를 내려 놓고 상대를 높이고 섬기는 참 크리스천의 이상적인 삶을 살수 있도록 목장 안에서 끊임없이 훈련해 나갈수 있음을 축복이라 믿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1면서 계속> 단원들은 모두 입국 수속을 하고 모든 짐을 내려 통관 검사를 마친 후 다시 짐을 버스에 싣는 데 1시간이 소요되었다. 이 과정에서 EM 청년들과 ICY 고등부 학생들이 짐을 나를 때 너무 큰 수고들을 하였다. 국경 출발 후 4시간 만에 San Vincente 선교센터 도착하여 예배를 드린 후 다음 날 새벽 선교 활동 준비를 마치고 취침.

8월 12~13일은 *4:30에 일어나 두 팀으로 나누어 농장 노동자들이 모이는 버스 정류장에서 커피,컴라면, 초코파이와 전도지를 나눠주며 “디오스 때 아마(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며 2시간동안 새벽전도 활동을 했다.

*아침 식사 후 루디 목사님 교회로 이동하여 오전에 VBS 활동과 사진 솜 사랑,빙수 얼굴 페인팅 등 피에스타와 미용, 한방 침 치료 등을 하였다.

*방문, 마약 재활원 방문, 감뽀(집단 농장) 방문 등을 팀별로 실시 특히 감뽀를 방문했을 때 전에 없던 학교 건물이 세워진 것을 보며 우리가 간절히 기도드렸던 저들의 생활을 향상 시키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농장 노동자들이 일을 마친 후 루디 목사님 교회로 50여명의 성인들이 방문했을 때 저녁 식사 및 예배 후 선교단원이 노동자를 1:1로 안아주며 기도할 때 처음엔 가볍게 손을 잡던 그들이 기도를 더해감에 따라 손에 점점 힘을 주며 꼭 잡는 모습에서 말은 안 통해도 사랑을 느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보람을 느꼈다.

이번 선교활동을 은혜롭게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린다. 또 그들에게 꼭 필요한 선교 물품과 기도로 도와주셔서 우리가 방문한 곳마다 또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양하고 충분한 선교 물품들을 나누어 줄 수 있었던 것이 교우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도움의 결과라 생각하며 감사를 드린다.

예수님의 시선으로 보게 하옵소서

Jeongwoo Kim: Although missions was fun and full of joyful moments, there were many things that I reflected upon that I never really appreciated before. For example, I learned how blessed I am to have my family, friends, food, and many little things that I never had to worry about. One of the experiences that hit me the most was seeing the harsh reality in which some of these people live in. It truly was an eye-opening sight that allowed me to realize how much God has truly blessed me. However, I felt the most blessed when we had the opportunity to pray for those people in Mexico who were lost and needed God's presence in their lives. During this time, I really felt that God's presence was moving in each and every one of us because I believe that praying for those people was not only a blessing for me but a blessing for them as well. Overall Mexico Missions was one of the greatest experiences of my life and I hope to experience more of God's works in future missions to come.

Eric Lee: This was my second mission and it was a great experience. This mission really humbled me and I learned to be grateful.

Caleb Yun: Really happy I was finally able to attend a mission trip. Serving in Mexico has taught me more about gratitude and selflessness. I hope to embody these values as I continue to live out my faith!

Elim Choi: Even though it was my third time

going to a Mexico mission, God always teaches me something new every time. During this mission, we visited a couple homes of the natives and I was reminded that I don't get to live under a stable roof, get to go to school, get to go to church, eat whatever I want, and wear whatever I want because God loves me more than those natives or because I am more worthy. It's because God CHOSE to bless me, and ever since realizing this, I've been so grateful.

Samuel Cho: Mexico Mission was a really good experience for me. When I saw the conditions that people were living in it showed me how first world my problems are and how spoiled I really am. It was a blessing to serve without expecting to receive and to just put a smile on all the kid's faces. Thank you to everyone who prepared for the mission and for everyone who prayed for us, we really appreciate all of the effort you put into this trip for us and it was a wonderful experience.

Kaylee Kim: This was my 3rd mission to Mexico so it was difficult to not just go about the motions. But seeing the smiles on each of the people I encountered, just for a sip of coffee really blessed me. I learned that even through the little things, God's love is present.

Jooan Choi: Mexico mission was a refresh to my life. Seeing people smile even though they have to live in a lifestyle like that was touching to see.



손끝에서 전해지는 사랑의 언어

Yehju Park: I was able to experience the depth and power of the blood of Jesus Christ, this mission trip. During my visit to the rehab center, I found it difficult to love the people there. However, this one question challenged my faith: What would Jesus Christ do if he was physically here with you at the moment? During His time on Earth, Jesus loved the prostitutes, tax collectors, fishermen, lepers, and etc. Jesus loved the sinners which eventually lead Him to die and bleed on the cross. I am a sinner and yet Jesus Christ loves me. Sangre de Jesús Cristo, has power to break all chains of sin and it allows a sinner like me to be in the presence of God.

Lauren Kim: When I heard I couldn't go on the bus and that I needed to go in the van, I was so mad that I couldn't go with my friends. But when I arrived in Mexico and saw how happy everyone was even through all their hardships, I realized how grateful I should be for at least being able to go to Mexico and serve others to see them smile. I realized how privileged I am to live the life I'm living right now and that I should be happy with everything I have in my life. God allowed me to know that my life is filled with love and joy and that I should be grateful for everyone, no matter what.

Minho Park: This Mission gave me a key to be brave. But before I went to the Mission trip and during the mission, I was scared because everything was new like relationship and

language. And during the Mission I couldn't even say God bless you to them because I didn't know any Spanish. But God said to me '...do not worry about what to say or how to say it. At that time you will be given what to say. For it will not be you speaking, but the Spirit of your Father speaking through you.'(Matthew 10:19~20) After God said this, I was not afraid anymore because God is with us and works for us.

Seobin Yun: Personally, mission was a huge challenge for me. When I visited the rehab center, it was hard for me to love people I was serving because they looked very scary. I was there to serve God's people but I was there judging just because they looked "scary". While I was serving them, I told God I was sorry for not being able to love His children the way He have loved them and asked to give me a strength to serve them with Father's heart. Eventually, I was able to overcome my fear and was able to serve His people with love. Even though it was very challenging, I am so blessed to experience this because I was able to see a glimpse of God's love towards His people.

Justin Park: Mission opened my perception to what prayer can work in people's lives, even in the lives of people not of our culture and language. The prayers are always needed and I've been told and believe that those who are being pray for will never be lost nor forgotten by God.

What would Jesus do, if He is here...

8/11 Sun: Coming to the border today was a totally different experience compared to last year. I kept on thinking about ICE and just the overall controversy of the border. Tomorrow, we are going to the mission field...

8/12 Mon: Two teams, including mine went to Colonet, to serve the farmers, who usually went to work on an empty stomach. With every cup noodle, choco pie, or coffee we served, we told the people of Mexico, "Jesus te Ama, Jesus loves you or Dios le bendiga, God bless you." My favorite part of the day, was going to the church to see the children. I completely understand now, what Jesus meant when he said that we must have hearts like little children to enter heaven. They all had smiles on their faces when we had VBS with them today.

8/13 Tue: Today we visited the rehab center with the whole ICY. It was quite frightening at first because the men were rowdy and up-front. Unlike, the children from the church, it took effort to love them. But, as I served them, today, a question stuck with me: "What would Jesus do, if He was here right now?" When Jesus walked on this Earth, He showed love to the prostitutes, tax collectors, lepers, fishermen, and etc. As a follower of Christ, shouldn't I reflect that love to the ones that are hard to love? I experienced something very important, today: the Blood of Jesus, Sangre de Jesus.

In Mexico, I realized that we have planted seeds of the Gospel into the people's hearts.

| Yehju Park(EM) |

2세대 뿌리교육 더욱 열심히

■ 한글학교 개강

9월 8일 주일부터 주안에 한글학교가 시작된다. 한글학교 교장과 선생님들은 지난 24일 Belgium 와플 하우스에서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준비 모임을 가졌다. 본국에서 만들어진 교포를 위한 한국어 교과서를 장은경 교장선생님께 배부해 주셨고, 학기 중에 해야 할 행사와 교과내용에 관하여 설명과 함께 의논의 시간을 가졌다. 학부모님들께서 귀한 자녀들을 보내 주시면 최선을 다해 한글을 가르치기로 다짐하였고, 많은 학생들의 참여를 기다리신다고 한다.



크리스 · 죠이 매기 부부 집들이

■ EM 교우동정

8월 9일 금요일 5시가 좀 넘은 시각, 크리스 안수집 사남과 죠이 권사님께서 새로 이사하신 Monrovia의 새 보금 자리에 MP EM멤버 3가정이 집들이겸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왔다. 준비해주신 월남쌈과 디저트로 맛난 저녁 식사를 하며 그 동안 퐁퐁 숨겨두었던 결혼 사진과 처녀, 총각때 사진을 꺼내 하하, 호호 웃으며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이야기 속으로 빠져 들었다.



■ 교사 칼럼

Back to School

School has finally started for our children. So, what should you be expecting? Well, if possible, attend the Back to School event. It is important to reach out to each teacher with self-introduction and provide your contact information as well. Most schools nowadays have apps, such as Remind, Powerschool, Google classroom, etc., that allow teachers to update students on assignments regularly. Be sure to be included in that communication. But more importantly, have a meaningful conversation with your children and remind them that your sole purpose is to be a support so that they can be successful throughout the school year, which can be stressful for them. Finally, don't forget to hug your children and tell them how much you love them daily.

| Simon Cho 기자 |

■ 대학으로 떠나며

"...but without God, I wouldn't be where I am today."

After four years of high school, I will finally be starting a new chapter of my life. Through the grace of God, I got accepted to Johns Hopkins University, and I will be spending the next four years in the east coast.

I'm leaving behind many things that I have in Los Angeles: a comfortable life, a great church community, friends, and family. But I'm not leaving behind God. It was through God that I have been blessed to attend the school I've wanted to go to since I was young. I took the most rigorous courses, did extracurricular activities, and did well on my tests all through the grace of God. It sounds cliché to say that God helped me through school, but without God, I wouldn't be where I am today.

I will place God in the priority seat. As I prepare myself for the east coast and for great change, I pray and hope for myself to continue to nurture the relationship I have with God. I want to walk beside God again and give all I can to the one who gave me so much.



Jason Oh(MP)

■ 교육부 소식(MP채플)

학부모 · 자녀들 땀별에서 웃음꽃

■ **ICY 햄버거 파티** 8월 25일 2부 예배후 임 시에베처소 뒷뜰에서 ICY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을 위한 파티가 있던날, 뒷뜰에 가보니 이 더운날 햄버거 패드를 땀을 뻘뻘 흘리시며 굽고 계신 집사님과 야채를 넣어 햄버거를 만들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 PSG 회장님과 ICY를 서포트하고 계신 2목장 목자님과 목원분들. 덕분에 배가 부른 어른들은 담소를 나누고, 아이들은 식사후 게임을 즐기며 모처럼 즐거운 하루, 날씨는 찌는 듯이 더웠지만, 마음은 풍요로운 감사한 날~



주일예배 · 방과후 프로그램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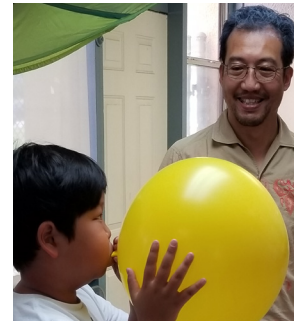
■ **교사미팅** 8월 11일 2부 예배후 샌드위치로 점심식사를 하면서 MP ICY 학부모 미팅이 시작 되었다. 총 5가지 계획안건을 가지고 김민재 전도사님께서 자세하게 짚어가며 설명해 주셨다. 특히, 새로 시작되는 '주안에 독서실'(after school 자습프로그램)의 많은 참여와 10주간 장년과 함께 드리는 예배 '사랑시리즈'에도 아이들이 통영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반드시 이어폰을 지참 하고 올 수 있도록 확인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도 하셨다. 그 어느때 보다 부모님들의 많은 참여로 미팅이 순조롭고 화기애애 하게 진행 되었고, 특히 2목장의 목자와 목원 전체가 PSG회장님과 더불어 MP ICY의 성장을 위해 적극 지원 하시고 협력 해 주시기로 하셨다.



실험으로 배우는 산 지식 흥미진진

■ **IC Kidz 과학교실** 8월 18일 MP KIDZ 예배실의 어린이 예배가 끝나고 아이들이 잠깐 쉬고 있는 사이, 짜이먼 집사님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바빠진다. 세제, 풍선, 식초, 컬러액, 얼음, 베이킹소다, 클립소다 등, 이것 저것 참, 많이도 꺼내 놓으신다. 쉬는 시간 뒤에 있을 '과학실험' 때문, 박사님 처럼 보이려 하얀색 헤어스프레이제를 뿌리고는 하~이 하며 나타나자 아이들의 눈이 기대감으로 휘둥그렇게 커지며, 금새 실험에 빠져든다.
공부는 듣기만 하는게 아니라, 만져봐야 한다고 했던가? 만지고, 터트리고 뿌리고, 아이들의 집중도 200% 이 정도만 집중하면 다~ 박사 되겠는데? 4~5 가지 실험을 할 동안 너도나도 어시스턴트를 하겠다고 난리법석, 그러는사이 벌써 시간 종료, 준비 하신건 15가지가 넘는데 반의 반도 못 보여 준셈...

| 이성은 기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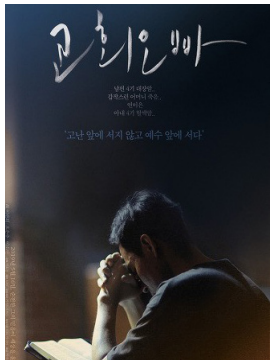
■ 영화리뷰 '교회오빠'

고난 속 사투하는 신앙의 삶

오랫동안 교회에서 연인으로 지냈던 두 사람이 사랑하여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아내가 산후 조리원에서 나오던날, 남편이 대장암 4기 진단을 받는다. 이것만도 청천벽력 같은 일인데 그 소식에 충격을 받은 어머니는 그 날로 삶을 마감하게 된다. 영화 '교회오빠'의 이야기다.

이것으로 불행이 끝이 났으면 좋으련만, 부인 오은주 집사의 혈액암 4기 판정, 하나만으로도 감당하기 힘든 불행이 연이어 찾아오지만 고 이관희 집사는 성경책에 나와있는 '옴' 보다 더 '옴' 다운 모습으로 성경책을 읽으며 '관희가 언제까지 버티나 두보 보라~!!!' 라며 같이 항암치료를 하는 아내 오은주 집사에게 '졸지마~!!!' 라고 말하는 장면은

나른 오열하게 만들었다. 고 이관희 집사님 이런 죽음과 삶의 갈림길에 있는 너와 나 이기 때문에 "내 안에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사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고 간증한다.



KBS에서 암환자들을 위한 다큐멘터리 '옴'에서 소개 되면서 국, 내외로 방송을 타긴 했으나, 처음에는 고사하던 영화제작을 다시 하게된 이유에 대해 영화로 만들어져서 더 많은 중증 암환자들이나 죽을 만큼 힘든 고난 속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사랑'이라는 메시지가 전달 되는 것이 자신의 마지막 사명이라고 답했다. 고 이관희 집사님은 KBS에서 다큐로 찍었던 부분외에 영화제작을 다시 시작하고 나서 10일 뒤인 자신의 40번째 생일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날과 같은날 아침에 하늘나라로 갔다.

2015년에 저도 남편과 같은 달에 병원에서 수술하고 입원했던 경험이 있어서 인지 누구보다 더 공감하며 보는 내내 눈물이 났고, 영화가 끝난 뒤에도 내 안에 새로운 영화가 시작된듯 잔잔한 파장이 일며, 내 믿음에 대한 끊임없는 물음이 시작 되었다. 나는 옴과 같은 상황에서도 과연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 하지않고, 나에게 주신 하루를 사랑 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온몸에 암이 전이 되어 죽음 앞에 너무 괴로워 "주님 제가 너무 아픕니다" 라고 하면서도 그걸 보고 계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생각하는 그를 볼때 마치 살아있는 옴의 모습을 보는듯 했다.

| 이성은 기자 |

■ 사역국 소개/ 사진국

한컷 한컷에 주안예교회 역사가...

사진찍기를 좋아하는 팔래미가 멕시코 선교를 다녀 온 후 꼬박 몇 일동안 찍어 온 사진들을 정리하여 교회에 보내는 것을 보면서 평소 교회의 모든 행사에서 사진을 찍는 사진국 팀들의 숨은 수고가 생각났다.

주안예교회의 모든 행사현장을 생생하게 사진에 담아 주안에 성도들에게 배달해 주는 주안에 사진국팀들은 거의 모든 행사참여는 그림의 떡이 되고 그저 이름도 빛도 없이 주안예교회를 빛내고 있다.

두 채플의 사진국은 MP채플의 국장 이광영 집사, 팀장 최호기 집사와 벨리채플의 국장 양영 권사, 팀장 김진홍 집사, 팀원 김다슬 집사, 최जू디 집사가 열심히 섬기고 있다.

주안에사진국의 모든 팀들은 팔뚝려 사진찍기는 물론 그 많은 사진중에 좋은 사진을 고르느라 긴 작업과 시간을 들여 가장 좋은 사진들을 뽑아 교회에 보낸다. 이렇듯 숨은 수고를 교회 안밖에서 아끼지 않는 사진 사역국에게 우리 모두의 감사한 맘을 찰칵~ 찍어 보내본다~♡

| 박경숙 기자 |



■ 주안에생명#3 소감

천사와 사탄... 말씀으로 명쾌하게 정리됐어요

막연하게 존재할 거라고 생각했던 천사와 사탄에 대해서 성경 말씀 구절구절 찾아가며 설명해 주시는 목사님의 강의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천사와 사탄은 적어도 6000년 이상 존재했다는 사실, 사람보다 힘도 강하고 속도도 빠르다는 속성을 자세히 알게 됨으로 감히 우리가 대적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천사는 지성, 감정, 의지를 가진 인격적인 존재로 특별히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은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과 동시에 우리 성도를 섬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천사의 사역중에 우리를 말씀대로 살도록 영적으로 육적으로 위기와 위험에서 우리를 돕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특별한 사랑이 예수님과 성령님 뿐만 아니라 천사들을 통해서도 이땅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시간 나를 지배하는 낙심(나의 시간과 계획대로 이루어 지지 않는 것들)과 미움, 시기, 욕심, 교만 등이 사탄이 주는 마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화란 계속해서 이 사탄과의 전쟁에서 나의 마음을 감사, 기쁨, 평안, 성령충만 등의 성령의 열매로 지켜내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은 우리가 가진 믿음의 크기보다 작다 라는 목사님의 설명이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탄을 말씀, 예수이름, 믿음, 성령충만과 기도로 이겨낼 수 있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항상 말씀 구절을 찾아주시며 쉽고 자세히 설명해 주시려고 애쓰시는 목사님의 강의를 통해서 많이 배웁니다. 이런 교회와 목사님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류명수 집사(벨리)

■ 비즈니스 탐방/ 김승환 집사 Lee's Key & Lock

■ 전문가 조언/ 은퇴플랜

'칩 내장' 자동차 키 문제도 쉽게 해결

아라비안 나이트중에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 이란 이야기 속에서 기억에 남는 주문은 바로 '열려라 참깨' 이다. 이야기 속에서 '열려라 참깨' 라는 주문은 굳게 잠긴 돌 문을 여는 key로 이 이야기를 들은 어린이들은 누구나 한 번쯤, 꼭 열렸으면 하는 문 앞에서 '열려라 참깨' 를 외치며 놀았던 지난 추억이 생각난다.

지난 해 타고다니는 차의 자동 알람 key가 망가져 어디서 고쳐야할지 몰라 구입을 미루고 있다가 급기야는 차 key가 부러지는 상황의 문앞에 서게 되었다. 차 딜러가 아닌 어디서 차



key를 고쳐야 할지 고민하다가 일단은 집 key를 복사해주는 Lock Smith를 찾아가려던 차에 LA에서 모임이 있던 날, 우연히 8가 길을 지나다가 Lock Smith 가게를 보았다.

차에서 내리는데 저 만치 교회에서 뵈 김승환 안수집사님을 보는 순간, 우연히 들른 곳이 집사님의 사업장인걸 알고 얼마나 반가웠던지...

그리고 문제의 차 key를 보여드리면서 맘속으로 '열려라 참깨' 라고 외치듯이 수리 가능한지를 여쭙어 봤더니 집사님께서서는 특유의 맥가이버의 미소를 지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 날도 바쁜 집사님께서서는 모임장소까지 차 key를 가져다 주셨다.

우리 인생의 Key는 각자가 열어야 할지라도 모든 문의 열쇠는 김승환 집사님의 손 끝에 달려 있으니 지금 이 순간 누군가에게 '열려라 참깨'가 필요하다면 LA의 Lee's key & Lock 앞에서 외쳐보자, '열려라 참깨!!'

리스열쇠(Lee's Key & Lock) 213-386-4242/ 3120 W. 8th St. Los Angeles, CA 90005 | 박경숙 기자 |

'롱텀케어' 필요성과 대비

롱텀케어(Long Term Care, 줄여서 LTC)란 우리말로로는 장기간호라고 할수 있는데, Chronic Illness(만성질환) 혹은 Disability(장애)인 사람들에 대한 비의료간호(Non-medical Care)를 일컫는 말입니다.



민유선 집사 (재정전문가)

기본적인 일상생활에 필요한 6 ADL(Six Daily Living Activity, 즉 밥먹기, 목욕하기, 옷입기, 화장실 가기, 침대에서 의자까지 움직이기, 용변 보기) 중 다른사람 도움없이 6가지중 두가지 이상을 최소 90일 이상 수행을 하지 못할경우, 또는 알츠하이머/치매와 같은 집중적인 관찰이 필요한 심각한 인지장애일 경우를 롱텀케어가 필요하다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롱텀케어가 중요한 이유는, 은퇴 후의 노년생활과 롱텀케어가 필요하게 되는 확률입니다. 일평생 10명중 7명은 Long term care가 필요한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분들이 메디케어에서 혜택을 줄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만 롱텀케어 혜택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메디칼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롱텀케어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롱텀케어에 필요한 비용 또한 은퇴계획에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입니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8년을 기준으로, 롱텀케어에 사용된 평균 비용은 요양센터, 혹은 집에서 간병인 케어를 받을 경우, 시설과 서비스에 따라 월간 4,000-8,000 달러까지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롱텀케어 막대한 비용을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보험 상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1. 롱텀케어보험(Stand-Alone Policy)는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지만, 사용치 않을 경우 소멸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2. 생명보험을 이용하는 플랜은 사망보상금을 롱텀케어에 사용할 수 있는 플랜입니다. 롱텀케어 비용으로 사용치 않을 경우, 사망보상금을 수혜자에게 남겨줄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3. Asset based long term care의 경우, 확대된 롱텀케어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을 이용하는 플랜보다 사망보상금이 적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 다육식물 키우기(2)



지난 호에서 다육 식물의 일반적인 특징과 키우기에 대해서 소개를 했는데 이번호에서는 다육이 곧 Succulents 를 실내에서 키우는 방법과 이용에 대해 소개하려 한다.

-번식: 다육이는 모양이 다양하고 색깔이 화려하여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키우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추세인데 다육이 번식이 용이해 환영을 받는다. 줄기나 가지 또는 떨어진 잎을 화분흙에 심으면 뿌리가 나고 하나의 개체가 된다.

-종류 선택: 다육이는 햇빛을 많이 받는 야외 환경을 좋아하므로 실내에서 키울 때는 부분 그늘 또는 완전 그늘을 좋아하는 품종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야외에서 잘 자라는 종류를 실내에서 키우면 잎의 색

깔과 모양이 좋지 않고 아주 약하게 되므로 적합한 품종을 선택 하는 것이 좋고 빨리 성장하는 품종 보다는 천천히 자라는 것이 적합하다

-적합한 실내 환경: 밝은 곳일수록 좋은

데 직사광선은 피한다. 배수가 잘 되는 화분흙을 좋아하며 공기 순환이 잘되는 곳이 적합하다.

-다육이 관리가 익숙해지면 한 화분에 2종류 이상의 다육이를 함께 심고 키우면 새로운 기쁨을 갖게 되는데 함께 심을 다육이를 선정 할 때는 잎의 크기나 색깔 등이 서로 조화가 될 수 있게 심도록 한다.

-물을 너무 많이 줄 경우: 잎이 힘이 없어 보이고 잎에 주름이 생긴다. 줄기 아랫부분에 검게 짓무른 큰 반점이 생긴다. 잎이 쉽게 툭툭 떨어진다. 물이 부족 할 경우: 잎이 마르고 바삭바삭 해 진다. 다육이가 자라지 않는다. 줄기가 마르고 줄어든다.

| 나형철 기자 |

■ 새가족 소개

'테바...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저를 주안예교회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집에서 멀리 떨어진 교회를 딸과 함께 오랫동안 다녔어요. 3년 전에 딸이 결혼한 후에도 먼거리를 혼자 운전해서 다닌 이유는 구역가족이 너무 좋아 그냥 다니기로 했죠. 그런데 교회랑 의견충돌로 구역가족들이 다 흩어져 아쉬운 맘 이루말할 수 없더라고요.

주일마다 집에서 TV Channel 11 과 9에서 주일 설교를 듣기 시작, 드런데 맘에 평안이 없더라고요. 금년 초부터 Valley에 있는 미국교회와 한국교회를 찾아다니다가 우연히 주안예교회를 방문했는데 새신자부 김선자 권사님이 저를 17목장으로 보내주셔서 절차도 없이 몇주 다니는데 새가족국 권사님이 갑자기 등록지를 내밀며

그냥 오늘 등록하게 되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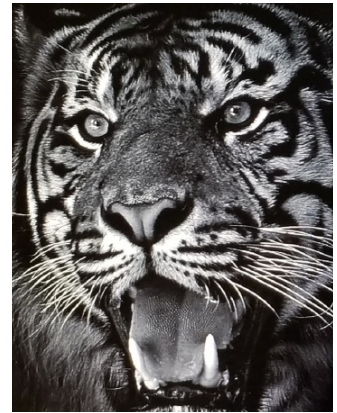
최목사님의 설교 중 테바가 제일 맘에 와닿았어요. 테바 단어를 처음 알고 성도들이 테바로 삶을 살아감을 알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테바로 모른채 제 머리로써 제 삶을 조절할 때 좋은 길로 또는 나쁜 길로 가게 되었음에 그냥 소원과 감사함만 되풀이하며 늘 기도했어요.

이젠 하나님의 테바 안에 있음을 믿고 제 뜻대로 방향 조절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묵묵히 하나님이 이끄시는대로 가야함을 받아들이니 맘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감사합니다.



정진이 집사(벨리)

■ 포토 에세이



이빨 빠진 호랑이

난 보다시피 윗 이빨들이 늙어서 빠졌다. 젊었을 땐 나도 우리마을에서 제일 잘나가던 시절이있었다. 내가 아~ 응 하고 소리만 지르면 다들 놀래서 덜덜 떨었다. 지금은 늙었다고 완전 찬밥 신세다. 친구들도 그렇고 아들, 딸들도 나랑 놀아주지 않는다. 내가 제일좋아하는 황소는 커녕 쥐새끼도 못잡아먹고 산다. 요즘은 친구들이 잡은고기를 나누어 먹자고 연락조차 없다. 내가 잘나갈 때는 그친구들한테 한없이 한우를 퍼주었는데... 이것 참! 뼈가 저리도록 맘이 아파고 섬섬하다. 이렇게 집에만 있기는 싫다. 혼자지만 지금이라도 내가좋아하는 잣나무 위에서 뽀짝 거리는 별들이나 보고 좋은 날들이 다시오기를 기대해봐야겠다.

| 최호기 기자 |



샌 비센테 감뽀의 모녀- 멕시코 단기선교팀이 방문한 노동자들 주거지 감뽀의 모습 남자들이 일하러 나간 낯시간 여성들과 아이들이 종일 고단한 삶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아닐까? (사진: 김다슬 집사)

예배시간 및 교회 위치 안내

주일 예배

벨리채플/ 1부 오전 8:00, 2부 10:00
MP채플/ 1부 오전 10:00, 2부 오후 1:00

주중 예배

수요일예배/ 저녁 7:45 MP채플
금요일예배/ 저녁 7:30 벨리채플

새벽 예배

벨리채플/ 새벽 5:30(월-금), 6:00(토)
MP채플/ 새벽 5:30(월-금), 6:00(토)

교육부 예배시간(교회학교)

벨리채플/ 주일 오전 10:00, 수 저녁 7:45
MP채플/ 주일 오전 11:30, 금 저녁 7:45

ICY중고등부&영어청년부

벨리채플/ 주일 오후 1:30, MP채플/ 주일 오전 10:00

Coram Deo(한어청년부)

벨리채플/ 주일 오전 10:00, MP채플/ 주일 오후 1:00

벨리채플 Valley Chapel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MP채플 임시예배처소 MP Chapel

333 S. Garfield Ave. Monterey Park, CA 91754

“주안에” 2019년 10월호 원고 모집

'주안에'는 교우 모두가 참여하여 만드는 우리교회 뉴스레터입니다. 교구, 구역, 사역팀 소식을 비롯, 간증과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까지 함께 나누고 싶은 글을 많이 보내주세요. icccnews123@gmail.com

발행처: 주안예교회 문서사역국

문서사역국 명단: 오희경(국장), 김신실, 나형철, 박경숙, 이광영, 이성은, 이예스더, 임용자, 임종구, 조 사이먼, 조용대(기자)

양영, 최호기(사진) 편집디자인: 김윤영

2019년부터는 주안예신문이 매달 초에 미리 발행됨을 알려드립니다.